

“전북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열 것”

정동영 예비후보 “역사상 최대 예산 확보는 다당제의 위력”

정동영 21대 총선 전주(병) 예비후보가 “전북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라북도의 국가예산은 7조 6,000억원으로 19대 국회 마지막인 2016년 6조5,000억원보다 1조5,500억원, 25.6%가 늘어났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북 역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당제의 위력이었다”며 “1당 독점보다 다당제 경쟁이 지역발전에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대 국회 예산 대폭 확대를 성사시킨 힘과 추진력으로 전라북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에는 국회 예결산위에 15명의 전북의원이 한평도 들어가지 못해 전북예산을 쟁길 기회가 막힐 위기에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북 예산도 6조5,000억원 수준으로 도가 제출한 7조5,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적으며, 2019년 예산 7조 300억원보다도 적은 수준이었다.

정부가 여당의 전북 확대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1당 독점이 지역발전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사실은 그간의 연도별 전북예산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2012년 전북예산은 5조5,000억원이었지만 2016년은 6조 500억원으로 5,500억원이 늘어났다. 2014년 예산 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1당 독점시대의 폐해가 여실히 나타난 결과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전북예산을 비교해보면 1당 독점은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정채되던 전북예산은 20대 총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이 다당제 경쟁시대를 열어준 덕분에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6조2,500억원, 2018년 6조5,600억원, 2019년 7조300억원, 2019년 7조6,000억원 등 19대 국회

당시 증가분과 비교해보면 3배가 차이난다.

이에 더해 정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전북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 요구가 나오고 있고,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가 5대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되면서 정부예산의 큰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2020년 새만금 예산은 1조 4,000억원으로 역시나 사상 최대 규모이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탄소산업, 드론 산업 육성, 상용차산업 혁신기술개발,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서 큰 예산 증가를 이뤄냈다”며 “21대 국회에서 전북 국가예산이 10조원이 돌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1당 독점이 아닌 경쟁을 위한 다당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분들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민주 전북도당, 총선 선대위 발표

공동선대위원장에 김윤덕·김성주 등 임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미래준비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선거대책 부위원장, 고문단, 특보단, 선거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대변인실, 4개추진단, 8개본부, 10개지역위원회,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선대위 구성원은 중앙당 호남권선대위원장인 이개호 의원과 이강래(남원·임실·순창 후보),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 후보)이 임명됐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윤덕(전주 갑), 이상직(전주 을), 김성주(전주 병), 신영대(군산), 김수홍(익산 갑), 한병도(익산 을),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총선 후보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한완수, 송지용 부의장 등이 임명됐다.

선거대책 부위원장으로 도내 14개 시·군 부의장과 전북도당 부위원장

다수로 결정됐으며 총선 예비 후보로 경선에 참여한 이덕춘 변호사와 고준식 진안군 정책특보를 맡게됐다.

특히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 원내대표인 이한기 의원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코로나19대책 추진단장으로 허석준 전 진안군 의료

원장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했다.

특히 제3금융도시 및 금융생태계 성과 공용위지역 극복을 통해 전북성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김성주, 신영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업무를 겸하게 됐다.

/특별취재반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지위 향상 조례안 발의

도의회 성경찬·박희자 의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박희자(비례) 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라

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매년 지원계획 수립과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과 업

무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규정했고, 연구활동과 포상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전북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진성 기자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팜플렛 / 리플렛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올

전주시 원산구 문화광장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

민주 '새만금잼버리 특별위원장' 임명

김윤덕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예비후보(전주갑)가 16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윤덕 예비후보는 세계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처음 제안했으며,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 연맹장으로 지난 2017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스카우트 총회에서 새만금을 25회 세계잼버리 개최 장소로 확정 짓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후보는 지난해까지 한국스카우트 세계잼버리 공동준비 위원장으로도 활동해 오면서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김윤덕 후보자를 세계잼버리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2023년 새만금에서 열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김중희 의원, 7-7-7 공약 전격 발표

국회 김중희 의원(김제·부안)은 16일 김제시청 브리핑룸, 부안수협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 7대 전략과 7대 추진분야, 분야별 7대 실천과제로 이뤄진 이른바 '7-7-7 공약'을 발표했다.

제1호 대표공약으로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제기한 김의원은 이날 7대 전략중의 하나인 '전북 뉴실크로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7대 실천 과제를 선보였다.

7대 실천과제는 ▲KTX전북역신역 신설 ▲부창대교 건설 ▲새만금항 규모 확대 및 국비증액(5만톤급 부두 10만톤급으로 확대, 크루즈부두 8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 ▲KTX 김제역 정차 대폭 증편 ▲서해안 철도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 ▲서해안고속도로 동서천~서김제~고창 구간 확장이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예비후보 "원팀으로 더 큰 승리 할 것"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는 17일 "원팀으로 더 큰 승리와 힘 있는 여당중진의 힘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 후보로 확정됨과 동시에 지역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이에 대해 "지난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해주신 지역 주민과 당원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상대였던 박희승 예비후보에게 멋진 경쟁을 해준데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박 예비후보의 좋은 공약과 정책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선이 끝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깃발 아래 모두가 하나로 뭉쳐 반드시 분선에서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배수연 예비후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무소속 배수연 예비후보(익산을)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3선연임금지국회법을 개정 입법화하는데 앞장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임기 중에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중대한 비리 및 국가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당해 유권자들에게 소추의 권리를 부여해 주는 방법"이며 "3선 연임 금지법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게는 적용되는 법이지만, 현행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두 가지 법이 다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배 후보는 "이는 여러 가지 법리적 이유를 들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원 특권중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김경안 전 서남대 총장, 총선 출마 선언

김경안 전 서남대학교 총장이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갑 지역구에 출마한다.

김경안 전 총장은 16일 시청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미래통합당은 4·15총선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할 것을 요구하며 전락공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마를 결심한 것은 피폐해져가는 익산경제와 자영업자의 몰락을 보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전북도민과 익산시민의 준엄한 부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정치 인생의 정점을 이룬 총선에서 승리해 전북발전과 익산의 운명을 위해 일을 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